

성격특성의 지각차원*

한 덕 응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한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특성 용어들을 사용하여 성격을 지각하는 다차원구조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먼저 인쇄매체와 실생활에서 성격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785개 특성용어들을 모은 후, 사용빈도는 높으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도가 고른 특성들이 섞이도록 특성 수를 줄이고, 성격 용어로서의 의미가 유사한 범주별로 묶어서 대표적 용어 78개를 가려내었다. 이 특성 용어들은 들쭉 짝이워서 잘 아는 사람들의 성격에서 상호 공발생하는 정도를 300명의 대학생에게 평정토록하여 비연합치들의 행렬을 얻고, 이를 ALSICAL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차원분석했다. 이 분석결과, 스트레스 10% 수준에서 세 차원의 좌표치를 얻었다. 각 차원의 의미 해석에서는 축별 좌표치 값들을 고려하고, 또다른 240명의 대학생들이 78개의 특성들을 9개의 미분척도에서 의미를 평정한 평균들과 다차원 좌표값들 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 절차를 거쳐서 얻은 세 차원의 의미는 차례대로 대체로 평가(예: 좋다-나쁘다), 활동(예: 적극-소극, 내향-외향) 및 역능(예: 부드럽다-딱딱하다)으로 해석되었다. 이 결과는 국외에서 다차원 분석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과 중요한 점에서 일치된다. 이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성격의 지각차원과 객체인 성격구조의 상응성에 관한 이론적 문제점, 연구 기법 및 결과의 면에서 선행 연구와 관련지워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사람들은 타인이나 자신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추론의 틀을 사용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성격을 기술하는 대표적 특성용어들을 사용하여 특성들 간의 상호관련성 지각이 어떠한 구조를 이루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문제와 관련된 탐구는 상당기간 동안 성격이나 사회심리학자들에게 의해서 지속되온 셈이다. 성격의 특성이론가들은 특성을 성격 연구의 기본 단위로 삼고, 지각 대상인 인물의 객관적 성격구조를 알아내고자 시도했다. 이 접근법을 적용한 학자들의 연구성과는 현시점에 볼 때 상 황적 요인이 도외시된 점에서나 행동의 예측이라는 면에서 비판 대상이 되어있는데, 지각자의 특징과 관련지워서 전반적 평가는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즉,

지각 대상으로 탐구된 성격의 구조가 지각자의 추론과정과 관련지워 볼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설득력 있는 해명 방식이 제안되지 못했다. 이 서론에서는 지각 대상의 성격구조와 지각자의 성격추론구조와의 관련성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 및 연구 기법상의 중요 문제점들을 다룬 다음, 지각자의 성격 추론구조에 관한 필자의 실증적 연구과제와 접근법을 간략히 다루게 된다.

지각 대상인 사람의 성격구조에 관한 특성이론적 연구는 지각자의 성격 추론구조와 관련짓지 못한채로 이루어져왔다. 잘 알려진 대로 특성이론가들은 성격을 기술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표적 특성용어들을 가려내어 이를 근거로 지각 대상인 성격의 특성구조 요인들을 알아내는데 관심을 보였다. 이 방면의 연구 성과가 만족스러운 정도로 일반성과 일관성을 획득하지는

* 이 연구는 성균관술비의 연구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도와 준 김교현, 강혜자, 이경성씨에게 감사한다.

못했지만, 일련의 연구자들은(e.g. Norman, 1963) 대표적 특성용어를 근거로 요인분석법을 적용했을때 다섯개의 요인들로 축약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다섯개 성격요인들의 명칭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지만(Borkenau & Liebler, 1992) Norman(1963)이후 대체로 외향성(extraversion), 쾌활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및 교양(culture)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한편, 성격 지각자의 추론구조를 다루는 연구들은 성격의 지각 및 추론에서 성격특성 용어들간의 상호관련성이 중심특성(Asch, 1946), 지각자의 오류(Wishner, 1960) 및 평가적 차원(Anderson, 1965) 등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으므로, 반드시 특성들 상호간의 언어적 관련성이나 논리적 추론에만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 방면의 연구자들은, 내현성격이론가들(예, Rosenberg, Nelson, & Vivekananthan, 1968)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지각자들이 개인적으로 지니는 추론구조에 큰 관심을 보이지만, 보편적으로 지니는 성격추론의 차원을 알아내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Schneider, 1973).

지각 대상으로서의 성격과 성격의 지각구조를 다루는 두 접근법의 차이점을 특징짓기 위하여 실재하는 친숙한 사람들을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된 특성들 상호관계로 성격구조를 파악한 경우를 외적구조라 부르고, 특성기술 용어들 상호간의 언어적 구조를 다룬 경우를 내적구조라고 부르기도 한다(Wiggins, 1973, p. 336-337).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볼때 성격의 외적구조와 내적구조간의 상응성에 관한 이론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고 외적구조와 내적구조를 다루어서 일관된 결과나 차이점을 얻었을 때 이 결과가 두 구조의 본질적 속성차이에 기인하는지 혹은 다만 연구 기법의 차이에 기인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먼저 내적구조와 외적구조간의 상응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성격의 안정된 외적구조를 판단할 때 어떤 형태로든 내적구조에 근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적구조를 반영하는 특성용어들의 의미론적 구조가 판단자들 사이에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이 판단자간 일치성 내적구조의 일치성만으로 실재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외적구조와 일치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재 인물의 성격특성을 기술할 때는 의미의 유사도 보다는 여러 유형의 평가치의 유사도에 크게 의존하여 특성들의 상호관련성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의미상의 유사성에서는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특성들이 함께 공존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osenberg & Sedlak, 1972, b).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격의 특성이론가들이 친구나 친숙하게 잘 아는 사람들을 평정한 자료로부터 얻은 성격 특성의 외적구조(예, Cattell, 1946, 1957; Tupes & Christal, 1961; Norman, 1961, 1963; Norman & Goldberg, 1969)와 특성용어들을 사용하여 지각자의 추론 구조를 다루되 특성들의 함축적 의미구조(D'Andrade, 1965), 감정적 의미구조(Hallworth, 1965; Miron & Osgood, 1966), 및 특성들의 범주관계나 공발생 구조를 다룬 내현성격이론 연구(Rosenberg, Nelson, & Vivekananthan, 1968; Rosenberg & Olson, 1970; Rosenberg & Sedlak, 1972)에서 얻은 내적구조 사이에 일관성있는 결과가 보고된 경우는 드물다(Rosenberg & Selalk, 1972, b).

이 연구들 가운데 외적구조가 특성용어들의 함축적 의미구조와 일치된다는 결과는 D'Andrade(1965)에 의해서 보고된 바 있다. 그는 외적구조가 내적구조의 단순한 투영이라고 명시적으로 가정하였다. 그는 이 가정을 검토하기 위한 외적구조 연구에서 Norman이 사용한 동일한 20개쌍 특성용어들을 분리하여 40개 용어들 상호간의 의미유사성을 평정토록 했다. 이 자료를 양극척도에서의 평균치로 전환한 자료를 요인분석함으로써 특성들의 요인부하량에서 Norman이 보고한 5개 요인들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의미유사도를 평정한 Hake(1969)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외적구조와 내적구조의 연구결과가 일치하는 자료들을 중시하는 학자들 가운데 D'Andrade의 주장과 유사하게 특성구조들이 실제로는 지각자의 구성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제안되기도 했다(Mischel, 1968). 다시말해서 성격을 객체로 본 특성들 상호간의 외적구조는 지각자가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적구조를 반영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는 인식의 객체와 주체에 관한 오래된 논쟁에서 주체의 주관을 강조하는 견해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주관적 현상학적 주장은 외적구조와 내적구조가 일관된

연구결과의 해석에서는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 모른다.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대로 외적구조와 내적구조의 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외적구조와 내적구조가 불일치 한다는 결과는 Peabody(1984)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Peabody는 자신의 이전 연구(1967)에서 사용한 특성들에 새 특성을 추가한 120개 특성들을 55개 양극척도에서 공존화율을 평정케해서 특성척도 평균치의 행렬식을 얻었다. 이 성격특성의 추론 자료로부터 요인분석으로 얻은 10요인들 가운데 변량이 가장 큰 세 요인들(tight 대 loose, self-assertiveness, 및 commitment 대 liability)은 평가적 요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기술요인들로 보았다(p.388). 그리고 이 특성행렬식의 요인 분석 결과가 외적구조를 다룬 Norman의 세 큰 요인들과는 유사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특성용어와 특성척도 행렬식에서 척도의 의미를 요인분석했을 때는 변량이 큰 세 요인들(loose와 unassertive 및 good, tight impulse-control 및 good, 그리고 assertive와 good) 모두 평가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을 함께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특성용어의 의미를 다룬 내적구조와 사람을 평정한 외적구조가 유사성과 차이점을 모두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p.373). Peabody의 보고와 유사하게 내적구조와 외적구조 양자간의 차이를 보고한 결과는 Goldberg(1981; Peabody, 1984, p.400에서 개인 서신 재인용)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Goldberg는 415개 특성들 상호간의 의미유사성을 96개 평정척도에서 평정케한 자료도 얻고 피험자 자신의 성격도 평정케하였는데, 자기보고 자료로부터는 Norman의 보고와 유사한 5개 요인을 얻었으나, 특성의 의미유사성 판단자료로부터는 변량이 큰 세 개 요인만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Peabody나 Goldberg의 결과를 토대로 Peabody(1984)는 특성에 대한 내적 추론구조와 사람에 대한 외적 추론구조가 서로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적구조는 외적구조보다 더 단순하며 상호관련성이 더 높게 조직화되어 있어서 요인 수도 작게 된다고 주장했다(p.400).

그런데 이 해석 역시 잠정적 가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처럼 두 구조가 일관되지 못한 결과가 양 구조의 실질적인 차이에 기인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에

사용된 평정 대상 인물, 특성들의 성질 및 자료의 분석 기법등 연구방법의 차이에 기인되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평정 대상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실제 인물을 특성에 따라서 평정한 대부분의 외적구조 연구에서는 대상인물로 친구, 상사, 자기 등을 평정케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 판단 대상들은 대체로 판단자가 잘 알고있는 타인이거나 자기 자신이다. 이 경우 평정해야할 실제인물이 모순적 특징을 함께 지닌 경우라도 언어적 의미유사성보다는 실제 인물의 기술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 인물의 기술에서는 그 인물에 관한 사전지식에 근거하여 언어적 유사성의 추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원형적 판단을 피할 수 있다. 이와같은 판단 배경의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구체적 인물을 대상으로 두고 내적구조를 다룬 경우에도 판단 대상과 판단자간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라도 판단에 필요한 사전지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적구조가 달라짐으로써 외적구조와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지각 대상 인물과의 친숙도에 따라서 성격판단의 내적구조가 달라진다는 증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의 성격 특성을 평정할 때에는, 친숙한 인물에 대해서 대상 중심의 평정이 이루어지는 바와는 달리, 극히 작은 신체적이거나 행동적 외부 단서들만으로도 외향성 등에서 신뢰성있고 타당성있게 고정관념적 추론이 나타난다(Borkenau & Liebler, 1992).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방법과 관련된 다른 제한점들 때문에 내적구조와 외적구조의 차이를 상용성에 직접 결부시켜서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대표적 특성용어들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대표성이나 상호비교 할만한 근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점에 해당되는 예들은 많은데, 특성연구자들과 내적 추론 연구자들이 사용한 특성 용어들간의 차이, Peabody(1964, 1987)가 사람과 특성평정에 각각 사용한 특성들 간의 차이, 대표적 용어 선정에서 연구자가 고르는 방법과 피험자의 자유반응을 얻는 방법간의 차이 등도 이같은 문제를 낳는다. 둘째, 내적이거나 외적구조를 추출하는데 사용된 통계적 분석기법에서 차이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결과에서의 차이가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분석기법상의 차이에 기인되는지 분명치 않다. 외적구조의 연구에서는 대개 특성상호간의 행렬식을 요인분석 방법으로

로 처리했다. 그러나 내적구조 연구에서는 전형적으로 특성들의 공발생 확률을 평정제 하거나 특성들의 범주별 분류로부터 비연합점수를 얻어서 다차원분석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두 통계적 분석기법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주장은 Rosenberg와 Sedlak (1970)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즉, 그들은 Peabody (1967)가 사용한 동일한 특성들을 유사범주로 분류하도록 하고 상호간의 비연합점수를 산출하여 다차원분석한 결과, Peabody가 기술적 요인들만을 보고한 바와는 달리, 변량이 큰 평가적 차원을 추출하였다. 그들은 이 결과에서의 차이가 상관계수행렬을 요인분석한 기법과 비연합차이 행렬식을 다차원분석한 기법상의 차이에서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즉, 특성들의 평균 평정치들로부터 상관계수를 산출하게 되면 특성들 상호간의 평가적 유사성에 관한 정보를 지니는 차이값들이 아울러 제거되기 때문에 평가적 차원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1970, p.620). 통계적 기법과 관련된 문제가 내외구조의 상용성에 관한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다른 예는 동일하게 특성상호간 상관계수 행렬을 요인분석했을 때에도 다차원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가적 차원이 추출된 보고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Peabody (1984)는 자신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특성들에 다른 특성들을 추가하여 특성상호간 의미 유사성의 추론평정치들×의미평정치도치 행렬을 얻고, 이 가운데 평정치도치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평가적 의미와 기술적 의미를 지닌 요인이 함께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이 결과는 결국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 내적구조와 외적구조를 다루어서 평가적 차원이 모두 추출되지 않았던 이유가 요인분석이나 다차원 분석이라는 통계적 기법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세째로 연구방법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외적구조나 내적구조로 얻은 요인들이나 차원들이 심리적 의미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해석하는 기법이 덜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서 Rosenberg와 동료들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다차원분석 결과의 차원 해석법은 Osgood(Osgood, Suci & Tannenbaum, 1958; Miron & Osgood, 1966)에 의해서 제안된 언어의 내포적 의미요인인 평가, 역능 및 활동 성과의 관계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외적구조를 다룬 Norman의 5개 요인이나 Peabody가 추출한 10개 특성요인 혹은 사람의 성격평정 5개 요인들은 평가, 역능 및 활동성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언어적 의미에서 볼때는 내적구조와 외적구조에서 얻은 차원들이나 요인들이 다소 다르더라도 공통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서 다차원 분석결과와 의미론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다섯개의 외적요인들인 외향성, 쾌활성, 성실성, 정서성, 안정성 및 교양요인들이나 이 요인들에 높게 부하된 특성들은 평가, 역능 및 활동성 요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성격의 외적구조요인들을 의미분척도로 해석하면 내적구조연구 결과의 의미구조와 유사하리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했으나(Rosenberg & Sedlak, 1972, p. 257), 아직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네째로 방법에 관련되는 문제는 내적구조라도 얻는 방식이 다르다면 결과에 차이를 보이며, 이의 해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Rosenberg와 Sedlak (1972, b)은 의미상의 유사성에 의해서 특성들의 공발생 정도를 추론케하면 실제 인물에서의 공발생 정도를 얻었을 때와 다른 구조를 얻게된다고 주장한다. 즉, 의미상의 공발생 정도를 판단케되면 특성용어의 언어적 구조를 얻게되며, 이는 성격지각의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

앞에서는 특성용어를 사용하여 성격의 구조나 성격지각의 구조를 연구해서 거둔 중요한 성과와 연구에서 당면한 이론적 및 방법적 문제점들을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시점에서 볼때, 연구성과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점 두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의 내적구조와 외적구조와의 상용성을 어떤 이론적 배경에서 정립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외적구조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구조가 보고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내적구조를 다루는 연구들은 구체적 절차와 기법에서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연구자들에게서 일관된 결과가 발표된 예를 제외하면, 연구자들 간에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서로 다른 연구자들의 내적구조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대표적 예로는 Peabody(1967, 1984, 1987)의 특성용어 추론연구와 Rosenberg와 동료학자들(1968, 1970, 1972)의 보고를 들 수 있는데, 연구절차에서 동일한 특성목록을 사용한 경우에도 구조 요인 혹은 차원의 추출기법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는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필자가 보기에 위에 제시된 두 문제점들을 다루는 하

나의 접근법으로서 동일한 대표적 특성용어들을 사용하되 외적구조나 내적구조를 얻는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게되면 체계적으로 결과의 일치점과 불일치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방법상의 차이에서 초래되는 내적 및 외적구조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두 구조 사이의 상용성을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보고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될 일련의 연구 가운데 성격지각의 내적구조를 알아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인쇄매체와 일상생활에서 성격특성을 기술하는 특성용어들 가운데 사용빈도는 모두 높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도나 의미범주가 서로 다른 특성들로 대표적 특성용어들을 가려내고, 내적구조의 연구에 자주 사용된 특성들의 공발생 정도를 평정케한 자료를 얻어서, 다차원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성격지각의 차원을 알아내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대표적 성격특성용어 선정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용어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1) 이회승(1967)의 우리말 사전, 문교부가 편찬한 최현배(1955, 1956)의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잣기 조사부터 인쇄매체 자료 가운데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가려냈다. (2) 인쇄매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한점을 벗어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격용어를 포함시키고자 한덕웅(1978)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1027명을 대상으로 자유반응 방식으로 직접 수집한 자료를 덧붙여 사용했다. (3) 이 단계에서 얻어진 785개의 용어 각각의 사용빈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도를 고려하여 특성용어들을 가려내고자, 용어의 사용빈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을 각각 대학생 125명과 228명에게 7점 척도에 평정케 하였다. 785개 특성용어들의 사용빈도, 개인적 선호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을 평정한 결과는 한덕웅(1992, 인쇄중)에 실려있다. 이 평정결과를 토대로 사용빈도의 평정치의 평균이 4.5 이상인 용어들을 가려낸후, 특성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하고 명료성이 있는 용어들 가운데서 평균치가 4.00 수준에 이르는 용어들을 포함하여 모두 413개 용어를 가려내었다. (4)

필자와 3명의 대학원생이 함께 협의하여 413개 용어 가운데 성격특성 용어로서의 의미가 유사한 용어들끼리 묶어서 제 1차로 366개의 소범주로 분류한 후, 제 2차로 250개의 소범주로 묶이도록 군집들을 만들었다. (5) 성격특성으로서 의미가 유사한 소범주들은 함께 묶어서 157개 중간 단위의 군집들을 만들었다. 이때 반대적 의미를 지니는 용어들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동일한 내용끼리 묶어서 반대되는 중간 단위 군집들이 이웃하도록 대비시켰다. (6) 여기에 선정된 특성용어들은 Rosenberg와 Sedlak(1972a)에서 보고된 110개의 특성들, Peabody(1967)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고 Rosenberg와 Olshan(1970)에 의해서 재사용된 60개의 용어(15범주 반대적미짜 각 두 개씩 $15 \times 2 \times 2 = 60$), Peabody(1984)의 80개 용어, Edward(1970)의 용어, Osgood과 Ware (Osgood, 1962)가 사용한 40개 의미미분척도의 양극 용어, Cattell(1965)의 특성요인들, Norman(1963)에 의해서 선정되고 D' Andrade(1965)에 의해서 재사용된 20개 용어 등과 대조하여 의미가 반드시 같지는 않아도 유사한 의미를 지닌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7) 각 범주에 속하는 특성들의 군집을 대표할만한 특성들을 선정할 때, 각 범주 내 특성들 가운데서 사용빈도 평균이 높고 사회적 바람직성의 평가치에서 긍정적 특성들과 부정적 특성들이 비교적 고르게 선정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78개 정도씩 하위 두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한 목록의 78개 용어들을 사용했다. 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78개의 특성들, 사용빈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의 평균치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다차원분석 자료의 수집

(1) 다차원분석 : 78개 특성용어 상호간의 비연합 측정치를 얻기 위하여 특성용어들을 둘씩 짝지어 제시하고 두 용어 가운데 앞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뒤에 적합한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판단토록 하였다. 판단할 때는 자신, 가족 혹은 잘 아는 주위 사람들이 두 성격특성들을 함께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서 두 특성의 공존 여부를 “전혀 다르다”부터 “항상 공존한다”까지의 7점 척도에 평정토록 하였다. 특성 용어들간의 의미상의 유사성을 평정시키지 않고, 이처럼 특성들간의 공발생 정도를 판단케 한 이유는 이 방법이

<표 1> 사용된 특성들의 사용빈도 및 바람직성

특성용어	사용빈도	사회적 바람직성		특성용어	사용빈도	사회적 바람직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대범하다	5.20	6.08	4.65	40 진 보 적	4.38	5.92	5.69
2 여유있다	5.17	6.35	5.11	41 예의바르다	5.37	5.91	6.01
3 완고하다	5.16	3.54	3.17	42 명량하다	5.84	5.86	5.97
4 예민하다	5.03	3.94	4.34	43 어리석다	4.67	1.98	2.15
5 성실하다	5.90	6.49	6.19	44 인정있다	5.38	5.72	5.84
6 의 존 적	4.38	1.97	2.87	45 부지런하다	5.57	6.33	6.29
7 변덕스럽다	4.98	1.99	2.33	46 깨끗하다	4.79	5.62	6.16
8 안정되다	4.34	5.92	5.43	47 적 극 적	5.40	6.07	5.54
9 양 심 적	4.93	5.79	5.80	48 공 격 적	4.60	2.78	2.29
10 경솔하다	5.00	2.17	2.46	49 교만하다	4.66	1.98	2.27
11 개 방 적	5.06	5.38	4.87	50 시끄럽다	4.46	2.32	2.09
12 무능하다	4.35	1.55	2.10	51 용감하다	4.94	5.97	4.66
13 불성실하다	4.96	1.67	2.08	52 무뚝뚝하다	5.48	3.82	3.02
14 자 주 적	4.07	5.99	5.72	53 게으르다	5.07	1.69	1.75
15 한결같다	4.45	5.48	5.39	54 더 럽 다	4.37	1.82	1.57
16 불안하다	4.34	5.08	2.25	55 소 극 적	5.40	2.18	2.71
17 열 성 적	5.01	5.88	5.50	56 소박하다	5.24	5.14	5.36
18 주 도 적	4.00	5.27	4.37	57 끈기있다	5.08	6.07	5.60
19 따듯하다	5.43	6.05	6.20	58 결단성있다	5.08	6.15	5.67
20 촌스럽다	4.80	2.94	3.02	59 세련되다	5.00	5.11	5.51
21 겸손하다	5.57	5.90	5.91	60 신중하다	5.34	5.85	5.60
22 조용하다	5.49	4.60	5.42	61 폐 쇄 적	4.07	1.79	2.16
23 비겁하다	4.76	1.77	2.10	62 차 다	5.13	3.08	3.10
24 상냥하다	5.61	5.39	6.15	63 약 하 다	4.76	2.48	3.72
25 이 지 적	4.84	5.76	5.72	64 험 동 적	4.60	5.89	5.74
26 현 실 적	5.42	4.81	4.60	65 교활하다	4.58	1.81	1.90
27 여 성 적	4.64	2.48	5.89	66 주책없다	4.73	2.16	2.08
28 독 창 적	4.48	6.10	5.92	67 절도있다	4.24	5.90	5.51
29 소심하다	5.54	2.36	2.99	68 온순하다	5.37	5.06	5.54
30 성급하다	5.56	2.77	2.61	69 물인정하다	4.42	1.95	2.05
31 융통성있다	5.33	5.86	5.80	70 현명하다	5.04	5.98	6.04
32 둔 하 다	4.70	2.17	2.10	71 우울하다	5.00	2.48	2.70
33 감 정 적	5.08	3.59	4.09	72 무례하다	4.68	2.16	2.16
34 이 상 적	4.62	5.37	5.45	73 재치있다	5.12	5.76	5.95
35 남 성 적	5.17	6.16	3.27	74 점 값 다	5.22	5.28	4.84
36 현 신 적	4.52	5.62	5.84	75 무절제하다	4.20	1.86	1.69
37 솔직하다	5.66	6.11	5.78	76 난폭하다	4.50	1.63	1.56
38 위 선 적	4.80	1.54	1.85	77 보 수 적	5.17	3.37	3.69
39 강 하 다	5.06	5.85	5.01	78 유능하다	4.68	6.17	5.74

특성용어들의 언어적 구조보다 현존하는 사람들의 지각된 성격구조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으로 얻은 78개 특성용어 상호간의 비연합측정치 상관행렬은 다차원분석을 위해서 SPSS*의 ALSCAL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2) 다차원분석결과와 해석 : 다차원분석 결과로 얻은 차원의 해석은 ① 분석 결과로 부터 두 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평면에 78개 특성용어들을 차원별 좌표 점수들을 위치 시켜서 직접 눈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② 해석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9개 의미미분척도 들에 78개 특성들 각각의 의미를 평정토록해서 의미축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 다차원의 해석을 위해서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들은 Rosenberg와 Olshan(1970)이 사용한 **좋다-나쁘다, 사회적으로 좋다-사회적으로 나쁘다, 딱딱하다-부드럽다, 능동적-수동적, 내향적-외향적, 충동적-억제적, 지배적-복종적, 결단성있다-우유부단하다**의 9개 척도였다. 이 9개 의미미분척도 각각을 준거변인으로하고, 각 차원에서의 78개 특성들의 위치 점수를 예언요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하여 회귀계수에 따라서 각 차원의 의미를 해석했다.

또한 다차원의 해석을 축약되게 요약하기 용이하도록 위의 9개 의미미분척도들이 구성하고있는 요인을 주요 소추출법과 Varimax 축회전 방법에 의해서 추출하여, 요인별 해석도 참고했다.

조사대상

(1) 다차원분석 : 특성용어들이 이루는 쌍들은 제시의 선후까지 고려하면 모두 6006개나 되므로 특성용어들의 제시 순서를 서로 달리한 소재자를 만들었다. 짝지워진 두 특성들의 전후 순서를 서로 바꾸어서 배치한 총 40개 종류의 소재자 각각에 300개의 짝지워진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피험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300명이었다. 그러므로 78개 특성 상호간의 쌍별 비연합측정치는 각각 최소한 25명의 피험자들로부터 얻은 평정치 차이값들로부터 중앙치로 산출했다.

(2) 다차원분석결과와 해석 : 다차원분석 결과를 실증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위에 적은 9개의 7점척 의미미분척도 각각에 78개 특성용어를 평정토록 하였는데, 이 조사에는 대학생 240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특성들의 제시순서를 달리한 4종의 질문지 가운데 한가지에

반응토록하여 각 특성마다 최소한 50여명씩 평정토록하고, 각 특성에 대한 의미평정 척도치의 중앙값을 구하여 이 값을 중다회귀분석에서 준거치로 사용했다.

결과 및 논의

특성용어들 간의 공발생 판단 자료를 ALSCAL에 의해서 stress가 10% 가까이 되는 차원까지 다차원 분석한 결과 세 차원이 추출되었다. 각 3차원까지의 stress수준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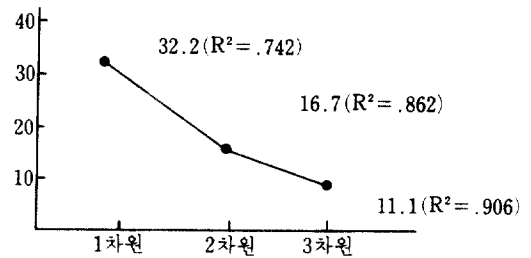


그림 1. 각 3차원까지의 stress수준

그리고 다차원분석 결과에 따라서 특성용어별로 3차원 좌표치를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위에서 제시한 3차원 좌표치를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내어 각각 1-2차원, 1-3차원 및 2-3차원 좌표치별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각각 그림 2, 3 및 4와 같다.

다차원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차원별로 양극에 놓인 특성들의 좌표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차원별 해석이 가능하다.

제 1차원의 양극 가운데 부정 방향으로 극단적 위치에 놓인 특성용어들은 차례대로, 불성실하다(2.11), 비겁하다(2.03), 더럽다(2.02), 게으르다(2.02), 무능하다(1.89), 불안하다(1.87), 어리석다(1.77), 위선적(1.76), 주책없다(1.80), 무절제하다(1.67), 난폭하다(1.58), 경솔하다(1.53), 및 무례하다(1.53) 등이다.

동일한 제 1차원에서 정적 방향의 극단에 놓인 특성용어들은, 부정 용어들 보다 대체로 덜 극단적 위치에 놓였지만, 순서대로 보면, 현명하다(1.55), 협동적(1.45), 성실하다(1.43), 부지런하다(1.38), 자주적(1.

<표 2> 다차원 분석 결과

순서	특성용어	차 원			순서	특성용어	차 원		
		1	2	3			1	2	3
1	대범하다	-0.9993	-1.0522	-0.5041	40	진 보 적	-0.9826	-1.3072	0.3883
2	여유있다	-1.2196	0.4519	0.1624	41	예의바르다	-1.2742	0.7676	0.4699
3	완고하다	0.2725	0.3158	-1.6539	42	명랑하다	-0.8829	-0.5484	1.1175
4	예민하다	0.4594	-0.0463	1.0803	43	어리석다	1.7658	0.7653	0.6376
5	성실하다	-1.4310	0.3692	-0.4106	44	인정있다	-0.9316	0.9783	0.7852
6	의존적이다	1.4986	1.1210	0.9696	45	부지런하다	-1.3806	0.0761	0.1322
7	변덕스럽다	1.7354	-0.3747	1.0940	46	깨끗하다	-1.2306	0.6862	0.2253
8	안정되다	-0.9266	0.8367	-0.9233	47	적 극 적	-0.9974	-1.2305	0.0253
9	양심적이다	-1.2692	0.7100	-0.1516	48	공 격 적	0.7739	-1.4103	-0.5865
10	경솔하다	1.5303	-0.8437	0.7371	49	교만하다	1.3402	-1.2129	-0.6505
11	개방적다	-0.7412	-1.1488	0.8145	50	시끄럽다	1.2843	-1.2771	0.7275
12	무능하다	1.8922	1.0488	0.0824	51	용감하다	-0.8179	-1.1790	-0.4794
13	불성실하다	2.1086	-0.1030	0.1238	52	무뚝뚝하다	0.2381	0.5161	-1.8017
14	자주적이다	-1.3270	-0.6639	-0.3694	53	계으르다	2.0202	0.7744	-0.0425
15	한결같다	-1.0231	0.4398	-1.0059	54	더 럽 다	2.0229	-0.0941	-1.0720
16	불안하다	1.8672	-0.0341	0.4026	55	소 극 적	1.0098	1.8135	0.0253
17	열 성 적	-0.8558	-1.2808	0.0733	56	소박하다	-0.4775	1.6309	0.1071
18	주 도 적	-0.9209	-1.1409	-0.3254	57	끈기있다	-1.1570	0.2361	-0.9926
19	따뜻하다	-0.9417	0.9030	0.8847	58	결단성있다	-1.1252	-0.8345	-0.8732
20	촌스럽다	0.6475	1.3969	-0.9932	59	세련되다	-0.7839	-0.8125	0.9766
21	겸손하다	-1.0208	1.2319	0.3994	60	신중하다	-1.1405	0.8677	-0.6772
22	조용하다	-0.5425	1.4494	-0.2106	61	폐 쇄 적	1.1150	1.2191	-1.2994
23	비겁하다	2.0264	-0.1245	0.6749	62	유능하다	-1.2026	-0.7758	-0.2981
24	상냥하다	-0.9365	0.8513	1.0516	63	보 수 적	0.4508	1.2408	-1.2044
25	이지적이다	-0.8507	-0.2296	-0.3438	64	난폭하다	1.5792	-1.2914	-0.7232
26	현 실 적	-0.5621	-0.6420	0.7714	65	무절제하다	1.6725	-1.2209	0.6051
27	여 성 적	-0.0175	1.0610	1.3466	66	점 찰 다	-0.8380	1.1648	-0.8801
28	독 창 적	-0.9266	-1.2367	-0.0150	67	재치있다	-0.9221	-0.8460	1.0067
29	소심하다	1.0060	1.6584	0.1698	68	무례하다	1.5323	-1.2578	-0.6005
30	성급하다	1.1029	-1.4396	0.4864	69	우울하다	1.3104	1.4654	-0.6585
31	움통성있다	-1.0483	-0.5747	1.1052	70	현명하다	-1.5467	-0.2911	-0.0123
32	둔 하 다	0.7845	1.4043	-1.0824	71	물인정하다	1.1601	-0.8425	-1.3258
33	감 정 적	0.6823	-0.1480	1.2865	72	온순하다	-0.6185	1.5894	0.6385
34	이 상 적	-1.0319	-0.6129	0.6100	73	절도있다	-1.0426	-0.2952	-1.0630
35	남 성 적	-0.4084	-1.0746	-0.6317	74	주책없다	1.7018	-0.4450	1.0722
36	헌 신 적	-1.1984	0.8256	0.7641	75	교활하다	1.4239	-1.3931	0.1560
37	솔직하다	-1.0470	-0.0713	0.5670	76	협 동 적	-1.4533	0.4128	0.4227
38	위 선 적	1.7607	-0.4941	-0.6110	77	약 하 다	0.6538	1.5003	1.1386
39	강 하 다	-0.8446	-1.2112	-0.3658	78	차 다	0.4222	-0.6671	-1.4766

33), 예의바르다(1.27), 양심적(1.27), 여유있다(1.22), 유능하다(1.20), 끈기있다(1.16), 신중하다(1.14) 및 결단성있다(1.13) 등이다.

이상에서 정리한대로 제 1차원의 양극에 놓인 특성용어들은 선악(좋다-나쁘다)을 나타내는 평가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평가적 차원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성실, 부지런, 행동, 예의, 양심등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특성용어들뿐만 아니라 현명, 자주, 유능, 결단 등의 지적이거나 능력요인들이 포함되고 있는 점이다.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 2차원을 해석해보자. 제 2차원의 정적 극단에는 소극적(1.81), 소심하다(1.66), 우울하다(1.47), 약하다(1.50), 소박하다(1.63), 온순하다(1.59), 둔하다(1.40) 및 촌스럽다(1.40), 조용하다(1.45) 등이 위치하고, 제 2차원 부정적 극단에는, 성급하다(1.44), 공격적(1.41), 교활하다(1.39), 진보적(1.31), 적극적(1.23), 독창적(1.24), 열성적(1.28), 강하다(1.21), 대범하다(1.05), 주도적(1.14), 난폭하다(1.30), 시끄럽다(1.28), 무례하다(1.26) 등이 위치한다. 이 양극에 놓인 특성용

어들로 볼때 제 2차원은 활동성 차원으로서 능동-수동 차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제 3차원을 특성용어의 위치에 따라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해보면, 정적으로 극단적 위치에 놓이는 특성용어들은 순서대로, 여성적(1.35), 감정적(1.29), 약하다(1.14), 명량하다(1.12), 융통성있다(1.11), 상냥하다(1.05)등이었다.

반면, 부정 극단에 위치한 특성용어들은 무뚝뚝하다(1.80), 완고하다(1.65), 차다(1.48), 물인정하다(1.33), 폐쇄적(1.30), 보수적(1.20), 둔하다(1.08), 더럽다(1.07), 절도있다(1.06) 순이었다. 따라서 이 양극에 놓인 특성용어들로 볼때 부드럽다-딱딱하다로 대표되는 역능차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는 다차원분석한 결과로 얻은 좌표값으로 읽었는데 차원을 해석하기 위하여 대체로 1차원은 좋다-나쁘다(평가), 2차원은 능동-수동(활동성) 그리고 3차원은 부드럽다-딱딱하다(역능성)로 해석되었다. 필자의 이와같은 해석은 각 차원의 의미를 알아 보기 위하여 78개 특성을 9개의 의미분척도에 평정케하여 차원별 좌표치들과 의미분 척도값 간의 중다상관을 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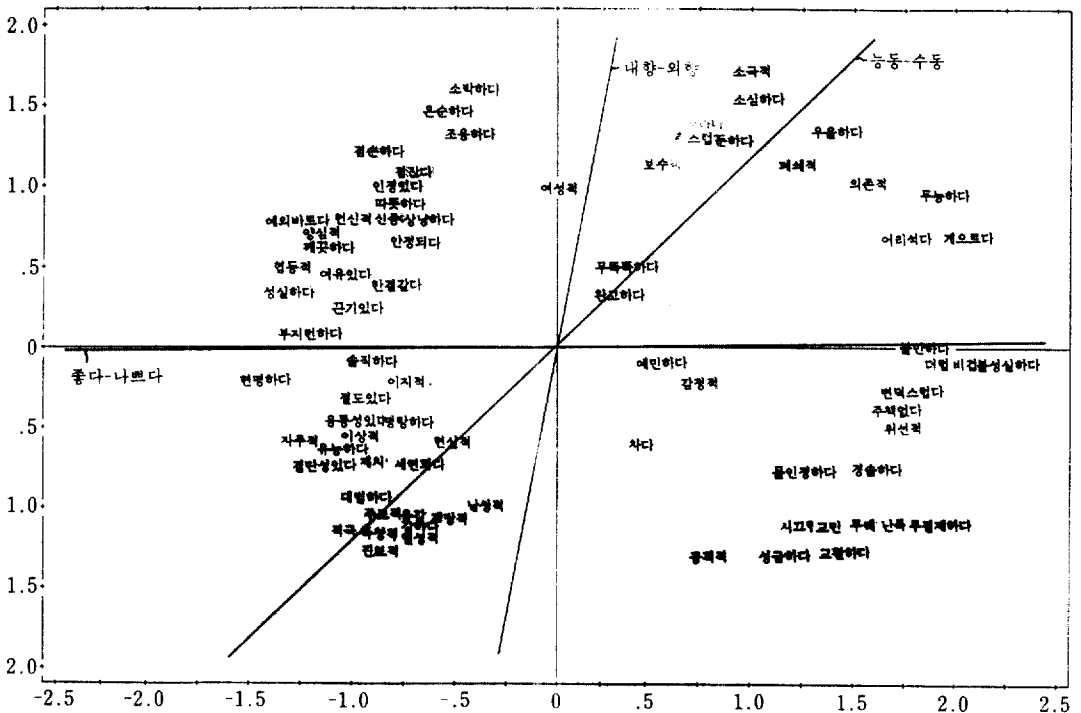


그림 2. 제 1(수평) 및 제 2(수직)차원에서의 특성들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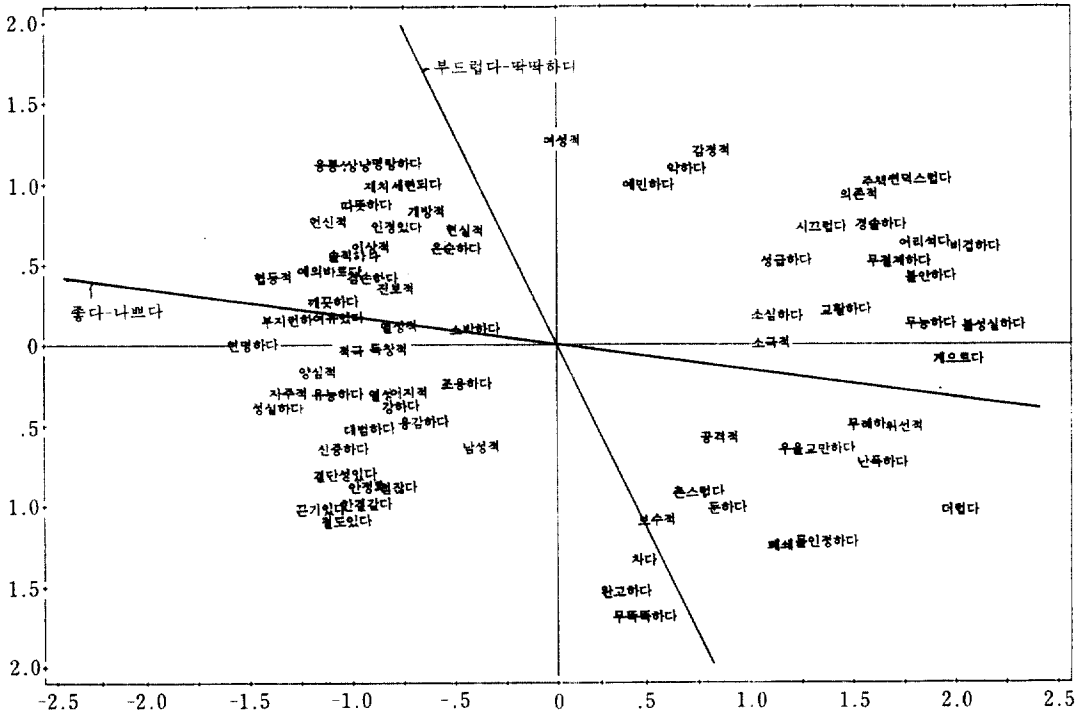


그림 3. 제 1(수평) 및 제 3(수직)차원에서의 특성들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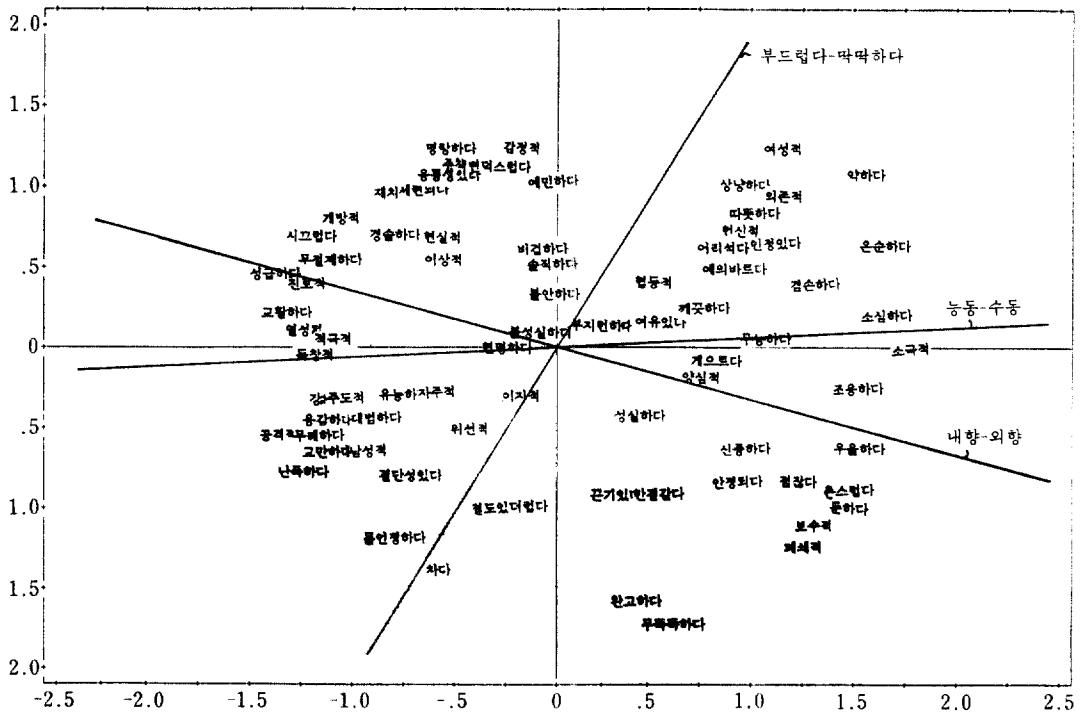


그림 4. 제 2(수평) 및 제 3(수직)차원에서의 특성들의 위치

결과에 의해서도 일반화될 수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세 차원의 설명에 각각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미분척도들을 위치시킨 결과는 위의 그림 2, 3 및 4에 제시되어있다. 이 의미차원별 해석은 세 차원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의미미분척도 선분의 해석이 용이하므로, 사용된 9개 의미미분척도의 요인구조, 3개 차원이 9개 의미미분척도 각각의 설명에 기여한 정도(R)에 관한 정보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해석한 다차원분석 결과를 Rosenberg와 동료학자들(1968, 1972)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물론, 본 연구결과와 Rosenberg 등의 두 연구는 사용된 대표적 특성용어들과 차원추출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논하게 된다. Rosenberg(1968)의 보고에서는 Peabody가 사용한 60개 특성들을 사용하였는데, 제 1차원의 평가(좋다-나쁘다)차원의 좋다는 축 끝에는 사회적, 믿음직하다, 정직하다, 융통성있는, 인기있는, 행복한, 진실한, 다정한, 협조적, 지적, 부지런하다 등이 위치하며, 나쁘다는 축 끝에는 부정직하다, 신뢰성없다, 불행한, 인기없는, 비사회적, 무책임한 및 유머감각없는 등이 위치했다. 이 결과를 본 연구의 제 1차원과 비교할 때 평가차원으로 분류된 특성용어들이 놓이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Rosenberg 등에서는 본 연구에는 사용되지 않은 인기, 행복, 유머감각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국 문화의 특징을 보인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 이 특성들이 포함되면 평가차원에 놓이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본 연구의 두번째 활동성차원인 능동적-수동적 축은 Rosenberg(1968)에서 세번째로 큰 변량을 보이는데, 능동적 끝에는 공격적, 결단성있는, 숙련된, 근면하다, 끈기있는, 지성적이 위치하며, 수동적 끝에는 어리석다, 무책임하다, 낭비적, 비지성적, 소박한, 경솔한, 신뢰성없는 및 망설이는 등이 위치한다. 이 차원 역시 사용된 용어는 다르나 본 연구의 능동-수동 차원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세번째 차원인 역능차원(부드럽다-딱딱하다)에서 딱딱하다는 끝에는 과학적, 결단성있는, 끈기있는, 숙련된, 부지런한, 지성적, 완고한, 진지한 등이 놓이며, 부드럽다는 끝에는 어리석다, 다정하다, 사회적, 품성좋은, 인기있는, 경솔한, 비지성적, 행복한, 유머있는 및 소박하다 등이 위치해서 본 연구결과와 의미상 매우 유사하다. Rosenberg와

Sedlak(1972a)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성격 용어 80개를 사용하여 특성분류방법으로 다차원분석한 결과도, 사용된 특성들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의미상으로 본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이들이 다차원분석에 사용한 특성들 상호간의 비연합도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처음에는 두 특성 상호간의 직접적 비연합도만을 산출했는데(Rosenberg & Sedlak, 1972a)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되 두 특성간의 직접적 연합도에 두 특성 각각이 제 3특성과의 사이에서 보인 간접적 연합도를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는 유사하나, 몇개 특성의 좌표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Rosenberg와 Sedlak(1972b)이 제 1차원의 평가차원으로 좋다는 방향 끝에는 따뜻하다, 책임있는, 애정있는, 안전한, 품성좋은, 정직한, 이해심있는 등이 놓였고, 나쁘다는 방향으로는 무책임한, 신뢰롭지 못한, 무사려한, 속이는, 속물적, 미성숙 등이 놓였다. 제 2차원인 역능차원(부드럽다-딱딱하다)의 부드럽다는 극에는 애정있는, 따뜻하다, 동정적, 충성스런, 외향적 등이 놓이고, 딱딱하다는 쪽으로는 속물적, 이기적, 지배적, 자기중심적, 편협한 등이 위치한다. 그들은 3차원인 활동성 차원을 세부적 특성들의 의미에 가깝게 지배적-복종적으로 명명하였다. 이 차원의 지배적 축에는 지배적, 비꼬는, 자기 중심적, 냉정한, 자신있는, 열 빠진 등이 위치하고, 반대편 복종적 차원에는 의존적, 내향적, 수줍은, 양심적 등이 위치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와의 비교 결과를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사용된 특성용어들이나 다차원 추출기법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미상으로 평가, 활동 및 역능의 세 차원이 추출된 점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결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특성들의 수와 성질, 특성들의 선정방법, 다차원의 추출기법 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첫째, 특성들의 수나 성질에 따라서 추출된 차원의 수나 의미의 해석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Peabody가 사용한 특성들을 다차원분석법으로 재분석했을때와 비교해서 특성들을 더 추가했을때는 차원수도 증가되고 차원의 의미 해석도 더 어려웠다. 둘째, 특성들을 선정할때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의미론적 유사범주로 묶어서 특성들을 선정했을때보다 자유반응 토록하여 피험자들이 사용하는 일상용어들을 가려내면,

같은 stress수준에서 차원들이 더 많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차원들을 해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Rosenberg & Sedlak, 1972b, p.265). 세째, 특성들이 서로 달라지게 되면 이 특성들의 지각차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미미분척도들의 의미구조 역시 달라진다. 예를들면 Peabody의 60개 특성으로부터 추출된 차원들의 해석에서는 9개 의미미분척도들이 각각 세 척도씩 평가, 역능 및 활동성의 세 요인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자유반응으로 얻은 80개 특성을 사용했을때는 평가요인과 활동성요인의 분할이 달리 이루어진다 (Rosenberg & Sedlak, 1972b, p.263). 즉, 지적 좋다-나쁘다는 활동성의 의미를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추세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이 연구에 사용된 특성들을 평정시켰을때 동일한 9개의 의미미분척도들이지만 좋다-나쁘다, 사회적 좋다-나쁘다, 지적 좋다-나쁘다가 평가적 요인에 크게 부하되는데, 이외에도 결단성이다-우유부단하다 및 적극적-소극적은, 의미가 활동성의 요인에도 크게 부하되지만 평가적 요인에 더 크게 부하되어서, 평가적 차원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9개 의미미분척도들을 요인분석한 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78개 특성들을 개념으로 써서 평정시켰을때 평가적 요인의 변량이 매우 컸다. 그리고 내향성-외향성 및 충동적-억제적 두 의미미분척도들이 독립된 내향성-외향성 의미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네째, 동일한 특성용어들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차원분석에 사용될 비연합도 측정치의 산출방식(예, 두 특성간의 직접적 연합점수만을 산출하는 방식과 제 3특성과의 비연합점수를 합산하는 방식, 유사범주별 분류에서 한 번 사용된 특성을 제외하는 방법과 포함하여 다시 여러차례 분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다소 달리 나타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방법상의 문제점들은 앞으로 동일 특성을 사용하면서 비연합점수 행렬의 분석방법을 달리 함으로써 직접 비교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상의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얻은 성격의 지각차원이 적어도 일반적 의미로 볼때 평가, 활동 및 역능의 세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문교부(1955, 195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조사(한국어 어휘사용의 빈도조사). 1955, 제2편, 1956, 제1편.
- 이희승(1967).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 한덕웅(1978). 성격특성의 귀속체계와 대인관계가 매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78, 8.
- 한덕웅(1992, 인쇄중). 성격특성용어의 사용빈도, 개인적 선호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Anderson, N.H. (1965). Averaging Vs adding as a stimulus 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un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0, 394-400.
- Asch, S.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orkenau, P., & Liebler, A. (1992). Trait Inferences: Sources of validity at zero acquain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 45-657.
- Cattell, R.B. (1957). *Personality and Motivation Structure and Measurement*, World Book, Yonkerson-Hudson, N.Y.
- Cattell, R.B. (1965b) *The Scientific Analysis of Personality*, Penguin, Baltimore.
- D'Andrade, R.G. (1965). "Trait psychology and componential analysis". *American Anthropologist*, 67, 215-228.
- Hakel, M.D. (1969). "Significance of 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for personality research and theory". *Proceedings of the 77th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403-404.
- Hallworth, H.J. (1965). "Dimensions of personality and mea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2, 297-302.
- Kuusinen, J. (1969). "Affective and denotative

- structures of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181-188.
- Miron, M.S., & Osgood, C.E. (1966) Language behavior: The Multivariate Structure of Qualification, 790-819. In R.B. Cattell, (Ed), *Handbook of Multivariate experimental Psychology*, Rand McNally, Chicago, pp. 790-819.
- Mischel, W. (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Wiley, New York.
- Norman, W.T. and L.R. Goldberg (1966). "Raters, ratees, and randomness in personality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681-691.
- Norman, W.T. (1963b).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Passini, F.T., & W.T. Norman. (1966). "A universal concep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44-49.
- Peabody, D. (1967). Trait inferences: Evaluative and descriptive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onograph*, 7(4), Whole No. 644.
- Peabody, D. (1984). Personality dimensions through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384-403.
- Peabody, D. (1987). Selecting representative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59-71.
- Rosenberg, S., & Olshan, K. (1970). Evaluation and descriptive aspects in personality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4), 619-626.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196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283-294.
- Rosenberg, S., & Sedlak, A. (1972a). Structural representatives of perceived personality trait relationship in Romney, A.K., Shepard, R. N., & Nerlove, S.B. (Eds). *Multidimensional scaling Vol. II.*, pp.133-162, N.Y.: Seminar Press.
- Rosenberg, S., & Sedlak, A. (1972b). Structural representations of implicit personality theory. In Berkowitz, L.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6, pp. 235-297, N.Y.: Academic Press.
- Schneider, D.J. (1973). Implicit personality the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979(5), 294-309.
- Tupes, E.C., and R.E. Christal (1961). *Recurrent Personality Factors Based on Trait Ratings*, USAF ANS Technical Report, No.61-97.
- Wiggins, J.S. (1973). *Personality and prediction: Principles of Personality Assessmen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Co.
- Wiggins, J.S. (1973). *Personality and prediction: Principle of personality assessment*.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Wishner, J. (1960). Reanalysis of impressions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67, 96-112.

Perceived Dimensions of Personality Traits.

Doug-Woong Hahn

Department of Industri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 Kyun Kwan University

In order to fi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rait inference, 300 college students rated the co-occurrence probability for each pair of the 78 representative traits. The result of the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ALSCAL) showed that the obtained three dimensions (about 10% stress level) could be interpreted as evaluation (e.g., good-bad), activity (e.g., active-passive), and potency (e.g., hard-soft) in terms of the general meaning of language.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Rosenberg's (1968, 1970, 1972, a, b) main findings.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external and the internal trait structure, the technique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